

'2019년 1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 MBC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19.1.29	대전MBC 대회의실	8	7	

- 시청자위원 불참자 명단 : 신성철 위원장, 권부남 위원, 이용원 위원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신원식 사장, 이재근 경영기술국장, 박선자 편성제작국장, 신영환 보도국장, 서주석 미디어전략국장, 정수진 방송기술센터장, 임세혁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1	14	7	-	2	23	-	24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24	-	-	24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7건	10건	
교양	TV 특강 : 보다 품위 있는 주제 선정 요망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홍순성 1인 기업 컨설턴트의 「100세 시대는 직장보다 직업이다」 방송. 유익한 강의로 시청자의 호응 얻음. <19.1월 조치>	'18.12월
교양	시사플러스 :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 필요.	카풀 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인터뷰 삽입으로 이슈에 대한 이해도 제고(1/14). <19.1월 조치>	'18.12월
교양	모든 것 연구소, 올랩 : 변화된 세트가 답답한 느낌	다양한 카메라 연출 기법을 통해 패널 간의 집중력을 높이고 프로그램의 밀도 제고. <19.1월 조치>	'18.12월
보도	시사토론 M : 주제선정은 좋았으나, 진행방식과 내용 전개 진부, 주제에 적합한 패널 선정 등	노정렬의 시사각각 신설. 1월 6일 (일) 편성. 새로운 포맷의 시사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음. <19.1월 조치>	'18.12월
보도	<아파트 라돈 검출>과 같은 환경 관련 보도 증가 요청	뉴스데스크, 「미세먼지 허울뿐인 비상저감», 「화력발전 출력제한 효과는?(1/15)」 방송으로 환경 관심 고조. <19.1월 조치>	'18.12월
보도	충남의 고소득 농가 보도 관련, 일반 농민의 현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도 기대.	아침이 좋다, 일반 농민의 일상을 담은 「논두렁밭두렁 폴리마켓(12/26)」, 「당진 백석 한과마을(12/21)」, 뉴스투데이 「세종시 로컬푸드(12/19)」 보도. <18.12월 조치>	'18.12월
보도	뉴스에서 행정기관 보다 시민의 목소리를 더 담아야.	뉴스데스크, 「세종시교육청, 고교배정 후순위 말린 195명 전원 구제(1/14)」로 해당 시민의 의견 반영. <19.1월 조치>	'18.12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내용	조치내용	조치일자	비고
-	-	-	-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성명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정보 공개 사항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대전 MBC 홈페이지	시청자위원회 월간 운영실적	인터넷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임기)*
위원장	신성철	KAIST총장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과학기술단체	18.05.01~ 19.04.30
부위원장	송길현	목요언론인클럽 고문	목요언론인클럽	언론관련단체	18.05.01~ 19.04.30
위원	김경희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표	대전여성정치 네트워크	여성단체	18.05.01~ 19.04.30
위원	함진호	ETRI 표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ETRI	과학기술단체	18.05.01~ 19.04.30
위원	권부남	대전 청소년 위캔 센터장	대전YWCA	청소년단체	18.05.01~ 19.04.30
위원	정대식	금성백조주택 사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18.05.01~ 19.04.30
위원	이용원	월간 토마토 편집인	(사)문화유산울림	문화단체	18.05.01~ 19.04.30
위원	김은주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18.05.01~ 19.04.30
위원	김종남	대전YMCA 사무총장	대전YMCA	소비자단체	18.05.01~ 19.04.30
위원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	학부모단체	18.05.01~ 19.04.30
위원	양선희	대전대학교 글로벌융합창의학부 교수	충청언론학회	언론관련단체	18.05.01~ 19.04.30
변 동 사 항					
-	-	-	-	-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편성	<p>노정렬의 시시각각 <허태정, 이춘희, 양승조 임기 2년차 속제는?> 편과 시사플러스 <2019 대전·세종·충남의 주요 현안은?> 편은 동일 방송 소재를 거의 유사하게 다루고 있어, 중복되는 내용의 똑같은 이야기를 2개의 프로그램에서 보는 느낌.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김충남 위원)</p>	<p>편성과 보도에서 유사한 (같은) 아이템은 방송될 수 있지만, 편성과 보도의 경우 같은 내용의 아이템이라도 프로그램의 전개와 구성 등 상이한 요소들이 있고 이는 다양한 접근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작진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직접 출연해 입장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제작하거나 현장 취재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등 제작 방식과 다양한 구성으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같은 아이템을 여러 프로그램에서 제작할 경우, 중복되는 느낌이 덜하도록 반영하겠습니다.</p>	○		
교양	<p>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을 계기로 관심이 고조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다루었는데, 우리 지역의 문제라서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다양한 시각에서 재해에 대한 대비 등을 잘 보여주었던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단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방송했는데, 사기업이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사기업에 대한 내용을 더 첨가하고, 법의 집행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사용자의 의견도 담았으면 한다. (송길현 위원)</p>	<p>프로그램 제작 아이템 선정시, 대형 이슈가 아닌 지역 시민들의 삶에 친착하는 소재를 채택하는 것은 제작자의 의무이자 항시적으로 고민이 머무는 지점입니다. 프로그램의 완성도 제고에 대해서는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p>	○		
	<p>유성전통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관심있게 보았다. 프로그램에서 다룬 시간이 짧아서 아쉬움이 남았다.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심도 깊은 보도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송길현 위원)</p>		○		
	<p>21일 방송된 유성전통시장(5일장)을 다룬 내용은 가슴에 감동을 남기는 좋은 소재를 적절히 방송하여 보기 좋았다. 다음 아이템인 카</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 용	참 고	반 론
	풀서비스 관련내용은 화제를 모은 트렌드의 이면을 알려줘, 재미있게 보았는데, 시민들의 인터뷰를 좀더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김중남 위원)				
교양	TV특강 <돈에 대한 이야기> 재미 있는 소재였으나, 방청객이 반팔이고 주변의 소음이 방송 중 계속되어 기술적인 아쉬움이 있었다. (송길현 위원)	사전제작 방식이라 방송과의 시차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청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주변 소음의 경우 방송용 스튜디오가 아닌 현장 녹화라 소음이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반작업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유의하여 제작하겠습니다.	○		
교양	건강플러스 하나의 질병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 들어서 프로그램을 다 보고 나면 해당 질병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목표가 있는 좋은 프로그램. 일반적인 건강 프로그램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보다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조금 보다가 바로 채널을 돌리곤 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진행자가 패널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이것은 어떤가요, 그런데 이것과 이것은 다른가요?’라는 방식으로 질문과 답을 이어가, 끝까지 프로그램을 보게 하는 힘이 있었다. 패널 의사의 진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현장감이 있어서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김은주 위원)	좋은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좀 더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		
교양	모든 것 연구소 올랩 - 2019. 1. 1. 명품과 패스트 패션 일단 촬영장 세트가 달라진 것을 발견했는데, 전보다 보기 편했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패널들의 모습도 보기 좋았다. 이날의 주제가 흥미를 끌었는데, 명품 브랜드인 샤넬, 프라다가 유명해지게 된 스토리는 워낙 유명해서 많이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 어린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프로그램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변화하고 발전하는 산물입니다. 계속적으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유명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내용, 셸럽의 기원, 외국의 중고명품시장과 잇백, 제품 소각 등 추가적으로 일반인들이 잘 모를만한 사실들을 많이 담아서 재미있게 보았다. 패스트패션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까지 담은 면은 프로그램의 공익성까지 고려하여 보기 좋았다. (김은주 위원)				
교양	명절과 가족의 의미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명절 관련 가족문화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사례 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했으면, 공동체에 기여하는 방송이 될 것 같다. (김경희 위원)	의견을 반영해 향후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	새롭게 시작한 시사토론 M 후속프로그램인 이 프로그램은 차별화된 포맷으로 시청자의 흥미를 불러 일으킬 요소가 많았다. 아이템 선정은 좋았는데, 토크쇼인지 토론인지 포맷의 정체성 문제는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프로그램 진행중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서 멘트를 전달할 때, 언어 사용이 너무 일상 언어 위주로 사용해서 전문적인 느낌이 부족했다.(양선희 위원)		○		
	2019. 1. 6 방송분, <허태정, 이춘희, 양승조 임기 2년차 숙제는?> 프로그램 첫 방송으로, 대전시장, 세종시장, 도지사를 초대해 올해 각 지역의 현안과 과제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패널로 각 자치단체장과 행정학 전공 교수가 출연했는데, 교수의 역할은 전문가이자 서브진행자였던 것으로 이해됐다. 기존의 토론 프로그램 보다 신선한 구도라고 느껴졌고, 진행자의 딱딱하지 않은 진행의 묘미도 돋보였다. 이런 구도를 기본으로 해서 그때그때의 주제에 따라서 진	시시각각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기존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진화를 위한 제작진의 노력을 애정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행방식에 약간의 변화를 주면, 썰전 스타일의 토론도 가능할 것 같아서 기대된다. 그리고, 3분할로 화면을 나누어 출연자의 표정을 자세히 보여주는 영상구성도 신선하고 보기 좋았다. (김은주 위원)</p>				
	<p>2019. 1. 20 방송분, <최악의 미세먼지 당진화력 수명연장?> 패널이 둘만 출연했지만, 진행자가 중간중간 개입하며 쟁점 물이와 주장 정리를 해줘서 보다 날카로운 토론이 되었다. 예전의 시사토론M은 패널들이 많이 출연함에도 불구하고 정적인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시시각각은 진행자의 토론 개입 정도에 따라 패널들 만으로도 충분히 풍부한 내용으로 토론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 (김은주 위원)</p>		○		
보도	<p>지난 24일, 문대통령의 대전 방문과 관련하여 4차 산업에 대한 대통령의 격려 격려로 많은 힘을 얻었다. 대전MBC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해 더욱 반가웠다. 연구자들에게는 많은 현안이 있고,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정치권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 과학기술계의 많은 현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심층보도와 양적인 측면에서의 확대가 있으면 한다. (함진호 위원)</p>	<p>대전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선포했을 당시 리포트를 두개의 아이템으로 나눠 보도했는데 한 아이템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집중적으로 다뤘으며, 이어지는 아이템에서 지역기반형 R&D 환경 조성 및 대전시와의 상생방안 등을 소개하는 리포트도 추후 제작했습니다.</p>	○		
보도	<p>1월 16일 연구목적기관 선정에 대한 뉴스는 연구단지 내에서도 이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숙원사업에 대한 필요한 보도로 좋은 뉴스였다. 구체적인 솔루션을 보여줄 수 있는 심층적인 보도가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흔치않은 소재를 뉴스 아이템으로 다룬 선택을 더욱 확대했으면 한다. (함진호 위원)</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p>새해 첫날 뉴스로 제야의 종소리, 식장산 해돋이 등을 보여줘 현장감 있는 소식을 전했으나,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1월 1일의 뉴스를 찾아보니 올해와 다를바 없어 아쉬웠다. 반복되는 사안의 뉴스라도, 변화를 주는 세심함과 새해 새아침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기획 같은 뉴스같은 역발상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양선희 위원)</p>	<p>새해 첫날 뉴스는 날의 특성상, 활기 넘치는 분위기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해돋이, 해맞이 행사를 중심으로 전하고 있으나, 형식과 내용 등에 변화를 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		
보도	<p>화제를 모았던 서천 노인 살인사건 보도에서 대전MBC는 상세한 보도로 좋은 반응을 얻었으나, 금전문제를 단독보도로 표기한 것은 ‘좀 과장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다. 단독보도라는 사안을 명시할 때는 시청자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확실한 내용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양선희 위원)</p>	<p>서천 살인사건 단독보도 관련, 사건에 취재팀과 제작진이 너무 몰입한 경우입니다. 일반 취재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어서, 금전문제라는 이슈를 단독으로 보도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뉴스밸류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p>	○		
보도	<p>대전지역 교복구매 지원 조례 제정이후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다. 가격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고, 교복 구매처의 여건도 불편해, 이에 대한 보도를 고려해도 좋을듯하다. (김종남 위원)</p>	<p>새해부터 추진하는 교복 구매 지원제도에 관해 학생과 학부모, 업계의 반응을 비롯해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는 보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p>	○		
보도	<p>예타 면제에 대한 많은 뉴스를 각 언론들이 쏟아내고 있지만, 모두 분홍빛 기대감만 드러내고 있어, 사업 진행이나 이후의 문제점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아쉬웠다. 언론의 기본 사명인 비판과 감시에 보다 충실한 뉴스를 기대한다. (양홍모 위원)</p>	<p>지역 현안 사업에 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발표 전후를 계기로, 사업 자체에 관한 내용을 충실히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관한 면밀한 전후방 분석을 통해, 장단점도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p>	○		
	<p>MBC의 뉴스에서도 타 방송사와 차이점이 없었다. 예타 면제후의 기대감과 분홍빛 청사진만 조명해 아쉬웠다.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만 이야기 할뿐, 재정에 대한 우려는 어디에도 없었다. 고른 시각으로 장, 단점을 함께 이야기 하</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는 뉴스를 기대한다. (김경희 위원)				
보도	대전시는 올해를 대전 방문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 단독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언론과 함께 뛰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안이다. 타 지역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아이들에게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과학 등)을 보다 다양하게 발굴, 방송해 많은 사람들이 대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한다. (정대식 위원)	2019 대전방문의 해와 관련한 기획보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이후 대전 관광의 현실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뉴스를 방송할 예정입니다.	○		
보도	미세먼지 관련 보도가 반복된 틀에서 계속 유사한 뉴스를 방송하고 있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세밀하고 자세한 보도의 필요성을 느낀다. 충남도 화력발전소의 세금으로 환경에 대한 비용으로 쓰이지 않고 있어, 화력 발전세에 대해서 해당 주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과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양홍모 위원)	시민들의 건강권과 직결된 미세먼지 보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에서 제기되고 있는 발전소 조기 폐쇄와 수명연장 반대 움직임, 관련 세금의 사용 등 정책 사안에 대해 자세히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	금강의 종어 복원에 대한 뉴스는 취재원이 제공한 소스를 그대로 사용하여 보다 정밀한 취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현장의 해당 주민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 뉴스에 반영하는 현실적인 뉴스가 아쉬웠다. (양홍모 위원)	지역에서 환경 파괴로 멸종된 어류 등 생물을 복원하는 뉴스는 좀더 시간을 할애해 입체적인 보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뉴스데스크는 지난 2월 2일 <천하진미 '종어' 맞불 날 오나...>"수라상 단골메뉴">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		
보도	천리포 수목원의 이른 봄에 대한 뉴스는 풍년화, 앵초 등의 아름다운 모습과 관계자, 시민 인터뷰까지 눈이 즐거운 뉴스로 흥미롭게 시청했다. 방송사가 위치한 주변에도 이런 장소가 많이 있고, 가까운 한밭수목원처럼 대전의 인근 명소도 많이 소개했으면 한다. (김경희 위원)	'천리포 수목원의 이른 봄꽃 개화' 소식은 연례적으로 다루는 뉴스로서, 다양한 식물이 서식하는 태안의 지리적, 기후적 특성상 내륙과는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들에게 계절적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스케치성 기사도 뉴스를 통해 다양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기타	1월 21일 세종시 화물차 전복으로 교통에 큰 지장을 주었다는 뉴스는 시청자 제공 영상이 있어 타사에 비해 돋보였다. 앞으로 시청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뉴스를 확대하였으면 한다. (양선희 위원)	대전MBC뉴스는 시청자 소통을 위해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소셜 미디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주요 사건사고시 제보 영상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속보를 전달해 왔습니다.	○		
기타	시시각각은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시사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의 이슈 계속 발굴 해주길 기대한다. 다만 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로 예고부터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대식 위원)	‘시시각각’의 예고는 방송 전달인 토요일 뉴스 시간에 빠짐없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풀 영상을 유튜브에 방송 당일 게시하고 있습니다. 편집부에서 예고편을 제작하면 대전MBC뉴스의 다양한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서기호 경영심의-2019-131 제15호
수 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참 조 지역미디어정책과
제 목 2019년 1월 시청자위원회 결과보고

2019-02-12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년 1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을 첨부와 같이 보고합니다.

※ 첨부 : 2019년 1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문화방송(주) 사장 신원식

